서당과 소학교

—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통제 기제의 완성과 세속화 —

김 윤 성*

> 차 례 <

1. 머리말
2. 서당의 출현과 전개
3.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통제 기제의 완성
4. 소학교의 출현과 전개
5.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통제 기제의 세속화
6. 맺음말

1. 머리말

몸은 생-역사적 존재인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적 기반이며, 그 안팎에서 무수한 힘들이 부딪히고 교차하는 장이다. 그리고 그 부딪힘은 그대로 몸 안팎에 새겨진다. 우리 몸은 개항 이후 전통적 삶의 방식이 붕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조건 속으로 던져졌다. 그 전환은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전환은 이질적인 두 삶의 방식이 부딪히면서 서서히,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었다. 개항 공간에서 사람들의 몸은 이러한 공존과 이행의 조건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존은 일제강점과 해방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차 깨지고, 결국 우리 몸을 둘러싼 조건은 뒤틀린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을 겪게 되었다.

이 글은 우리 몸 안팎에서 부딪혔던 힘들의 흔적을 추적함으로써 우리 몸이 처해온 이 근대적 조건의 연원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던 개항기의 초등교육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초등교육의 기능은 해당 사회의 구성방식에 들어맞는 사회구성원을 길러

* 서울대 강사, 종교학

내는 데 있다. 초등교육은 이를 위해 어린이의 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가시적 · 비가시적 훈육을 행사함으로써 그 삶의 조건을 틀 짓는다.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조건은 근대적 초등교육이 출현하면서 크게 변화했다. 성리학이라는 종교적-세속적 지배이념에 근거한 전통 초등교육은 어린이의 몸에 대해 그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는 총체적이고 가시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행사하고 있었다.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초등교육 기관이었던 서당은 19세기 후반까지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근대사회가 시작되면서 성리학의 종교적-세속적 일원성은 무너지고 종교와 세속이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소학교라는 형태로 새롭게 출현한 세속적 근대 초등교육은 어린이의 몸에 대해 그 내면과 외면을 분리시키면서 분절적이고 비가시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행사하기 시작했다.[1]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서당은 소학교에 의해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결국 어린이의 몸은 세속적인 근대 초등교육의 분절적이고 비가시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제 속으로 편입되어 갔다.[2] 따라서 이 전이의 과정을 탐구한다면 우리 몸이 처해온 근대적 조건의 연원을 밝히는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서당의 출현과 전개

고대사회가 성립되면서 문자를 소유한 소수 지배층 사이에서는 틀을 갖춘 제도적 교육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3] 그리하여 고대 삼국에는 (고구려

---

1) 근대적 학교에서 행사되는 근대 권력의 비가시적인 감시와 통제 기제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오생근 역, 나남, 1995)에서 명쾌하게 해부한 바 있다.

2) '서당이 소학교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했을 때 이는 서당이 짧은 시간 안에 소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개항기나 일제강점 초기까지만 해도 서당은 그 수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초등교육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뒤에서 보게 될 것과 같이, 서당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가 1918년에 「서당규칙」을 반포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서당이 초등교육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멸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에 「교육법」이 반포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가시적인 수적 변화의 문제일 뿐이고, 비가시적 차원에서 서당은 개항기에 초등교육에 관한 근대적 인식과 담론이 출현하면서부터 이미 소학교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다. 필자가 말하는 '서당의 주변화'란 이러한 '인식과 담론상의 주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 결과로서 나타난 '서당 수의 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한국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사』, 풀빛, 1993, pp. 35-36.

의 경당扃堂처럼) 집안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맹아적 형태의 사립 초등교육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사립 초등교육 기관들은 고려의 경관(經館)과 서사(書社)로 계승되었고,[4] 고려말에는 서재(書齋)로 발전했다. 서재는 조선초까지 그대로 존속하면서 결국 서당의 모태가 되었다.[5] 그러나 이제 막 출현한 서당이 널리 확산되어 주된 사립 초등교육 기관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렸다.

서당이 본격적인 사립 초등교육 기관으로서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사림파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한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통해 고려말 민중에 대한 귀족과 사찰의 수탈구조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집권층으로 자리잡았다. 그들은 관료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와 관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료의 재생산 구조를 완성하였다. 또 그들은 귀족과 사찰에서 해방된 농민을 양인(良人)으로 회복시켜 생산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 권력이 구석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제를 확고히 하였다.

여기서 신진사대부들이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고자 채택한 통치 이념은 바로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중앙집권적 위계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편성하는 도덕적 준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통치원리와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는 초월적 세계와의 소통인 '예'(禮)의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일원적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그리하여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의 통치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 사전체제를 정비하고, 이질적인 신앙과 의례들을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금지하였으며, 곳곳에 사직단을 설치하여 전국을 유교적 예로 통일해 갔다. 그들은 또한 불교적 상례를 없애기 위해 『주자가례』를 보급하고, 가묘제를 정착시켰으며, 『삼강행실도』와 『소학』을 간행 · 배포함으로써 유교적 윤리를 확산시켜 갔다.[6]

그런데 이러한 중앙집권화의 구심력은 그 안에 또 다른 원심력을 내포하

---

4) 송나라의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마을입구와 거리에 경관(經館)과 서사(書社)가 두셋씩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사설 초등교육 기관이 고려시대에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만규, 『조선교육사』 I, 풀빛, 1991, p. 93; 한기언, 『한국교육사』, 박영사, 1963, p. 70.

5) 정순우는 "향촌에 은거한 사대부들이 고래의 가숙당상(家塾黨庠)의 관념적 기반 위에서 가학전승(家學傳承)의 의욕을 외부인에게까지 확대하여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서재를 서당의 전 단계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8세기 서당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pp. 9-10.

6) 이욱, 「퇴계의 서원건립 활동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사회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 6-14.

고 있었다. 사대부들은 과거를 통해 관료사회의 핵심부로 진출하기를 열망하였으며, 이는 사대부들을 중앙집권제로 끌어들이는 구심력으로 작용하였다. 사대부들은 어디까지나 관리와 관리 지망자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유교이념을 실현하는 학자들이기도 했다. 사대부들은 처음부터 관리와 유교이념의 실현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다. 이 중에서 후자의 성격은 중앙집권제에 대항하는 원심력이 형성되는 작용점이 될 잠재력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구심력은 당분간 이 원심력을 그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조선초기 중앙집권제의 강화는 고려말 이후 재편되는 향촌질서의 수탈구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5세기를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점차 변질된 군역과 공납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또 다른 민중수탈 장치로 변질되어 갔고, 새로운 농사법의 도입을 통한 생산력의 발달은 농민층의 분해를 가속화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를 확대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을 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관료층은 이러한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더욱더 철저한 민중수탈의 주체가 되어 갔다. 이에 따라 피수탈자가 되지 않기 위해 관리가 되고자 하는 구심력은 더욱 강화되어 갔으며, 결국 유교이념은 관직에 나아가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점차 이 구심력에 종속되어 갔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아무리 강화되어도 그것이 전국에 완전히 파급될 수는 없었다. 또 공권력만으로는 유교이념이 지방의 하부조직까지 골고루 스며들 수도 없었다. 게다가 지방에는 재지사족(在地士族)이 있었다. 재지사족은 고려 이족(吏族)의 후손들로서 여말선초에 중앙의 권력구조 속으로 편입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면서 자치적인 질서를 마련하고자 한 계층이다. 이들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였으며 향촌사회에서 유교이념을 철저하게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정계에서 이탈한 사대부들이 향촌사회에 대거 재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사림파가 새로운 세력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사림파들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성리학적 수양론에 근거하여 왕과 관리의 덕치를 이룸으로써 훈구세력에 의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소학』을 보급하고 향약을 장려하며 문묘종사를 중시하고 소격서를 폐지하였다.[7] 그리하여 재지사족은 중앙집권적 구심력에 대항하는 원심력으로서 향촌사회에 유교이념을 확산시키는 주체들로 등장하게 되었다.

16세기에 서당이 중요한 사립 초등교육 기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이와

---

7) 같은 글, pp. 14-16.

같이 사림파가 향촌사회에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주체로 등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서원 설립을 통해 관학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적 교육체제를 구성하려던 것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16세기에 서당은 주로 향촌사회를 지배하던 재지사족, 특히 생원이나 진사를 비롯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않거나 관직에서 물러난 사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이 서당을 설립한 명분은 유학적 가치질서를 향촌사회에 부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교육방법은 『소학』이 제시하는 초등교육 방법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당은 위학적(爲學的)이고 과업적(科業的)인 수준의 이른바 고제적(高弟的) 성격을 띠게 되었다. 서당은 정부나 관청의 지원 없이 재지사족의 공동체적 일체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교육대상은 어린이에게 한정되지 않고 어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8]

양란은 조선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동을 가져왔다. 농촌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의 변질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윤리관이 파괴되고 신분질서가 동요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향촌사회의 재편성이 요구되었고 이는 교육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은 파괴된 윤리관을 회복하는 교화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재지사족이 지배세력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었다. 게다가 서원과 향교는 이미 심각한 폐해를 드러낸 채 강학(講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지사족은 서당을 설립하여 향촌사회를 그들의 주도하에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17세기에 서당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것은 이런 요구의 반영이었다.[9] 양란, 민란, 흉년, 당쟁 등으로 서당이 부실해지자 재지사족은 반촌(班村)간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서당을 중심으로 동약(洞約)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서당은 반촌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으며, 향약이 향촌사회에서 수행했던 것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10] 한편 명망 있는 사족들간에도 연합으로 서당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서당은 고제적 성격을 띠었으며, 향촌서당에 비해 학생의 연령과 학식이 높아서 정사(精舍), 서재(書齋), 서원(書院) 등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서당이든 그것은 사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민들에게 개방되지는 않았다.[11]

한편 재지사족의 서당 설립은 중앙정부의 일정한 묵인이나 승인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서당이 향촌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배치된다면 그 설립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재지사족의 경제력만으로

---

8) 정순우, 앞의 글, pp. 19-20.
9) 같은 글, p. 21.
10) 같은 글, pp. 42-45.
11) 같은 글, pp. 49-52.

는 독자적인 서당설립이 어려웠다. 따라서 재지사족은 수령에게 서당설립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로써 양자의 긴밀한 결합이 이루어졌다. 물론 15, 16세기에도 이런 결합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였고 그나마 어느 한편이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17세기의 양자의 결합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허약한 재지기반을 강화하고 이로써 중앙의 정치권력과 연결되고자 하는 재지사족의 의도와 서당을 향교나 서원 대신 향촌사회를 교화할 새로운 통치기구로 주목하게 된 정부의 관심이 얽혀져 이루어진 것이다.[12] 이와 같이 재지사족과 정부는 양란으로 파괴된 향촌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당을 둘러싸고 협조하거나 견제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 사족 중에는 한정된 관직수로 인해 많은 퇴직자와 무관직자가 생겨났는데, 그들은 농장을 중심으로 세력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족부락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에 들어 향촌사회는 동족부락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13] 재지사족은 17세기부터 동족부락을 중심으로 한 혈연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당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에는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서당을 설립하였다. 그들은 서당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 학전(學田)과 학름(學廩)을 설치하고 서당계(書堂契)를 조직하는 등 서당의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활을 모색하였다.[14]

반면 정부는 서당의 설립과 운영에서 점차 주도권을 상실해 갔다. 이는 재편된 향촌사회 질서 속에서 民을 장악하기 위해 향약을 보급하여 봉건적 신분제도를 강화하려던 정부의 의도가 실패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재지사족이 주도한 서당교육은 문중서당[15]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도 구태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16] 이로 인해 서당운영의 경제적 기반은 향촌내부에서 확보되어야 했으며, 따라서 학전이나 학름이 설치되고 서당계가 활발히 조직되었다.[17] 즉 향촌사회의 소농경제체제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학계(學契) 조직은 서당을 최대한 내부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서당들은 동족부락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친족간의 화목과 가학(家學)의 계승을 추

12) 같은 글, pp. 22-23, 32-42.
13) 최재석, 「동족부락」, 『한국사』, 13집, 국사편찬위원회, 1983, pp. 522-566.
14) 정순우, 앞의 글, pp. 52-53.
15) 이만규, 앞의 책, p. 179; 한기언, 앞의 책, p. 146-147.
16) 정순우, 앞의 글, pp. 56-62.
17) 같은 글, p. 65.

구하였다. 따라서 동족부락 서당의 성격은 외부적 간섭에 대해 배타적이 되고 교육 내용도 가학의 성격을 띠었다. 이렇게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문중합계(門中合契)나 일족합자(一族合資)에 의한 서당설립 양상은 조선말기까지 대표적인 서당설립 형태였다. 이런 현상은 서당을 둘러싼 설립주도 세력, 향촌민, 관권 사이의 부단한 대응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18]

서당의 설립과 운영 주체가 변함에 따라 서당의 기능도 변화되었다. 즉 서당은 이제 강학 기능 외에 조상을 기리거나 조상의 조두지소(俎豆之所)로 활용되는 향사(享祀) 기능도 갖게 되었다. 17세기까지 서당은 향사 기능을 부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서원이 본래의 강학 기능은 멀리하고 제향(祭享) 기능만 강화하여 붕당의 요인으로 변질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8세기 들어 서당이 서원과 향교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원이나 향교와 달리 서당의 향사는 선조 혹은 종족의 비조(鼻祖)에 한정되는 가묘(家廟)의 성격이 강했다. 서당이 향사 기능을 갖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 이후 서당이 동족부락의 자치적인 경제권 아래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종계(宗契), 문약(門約), 종맹(宗盟)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서당 설립 목적도 "보족"(保族)과 "의가"(宜家) 등 문중의 세력보전과 공동체의식의 확보에 있었다. 따라서 서원이 명유신현(名儒臣賢)을 제향함으로써 당색을 같이하는 유림들의 집결체가 되고 중앙정계까지 영향력을 끼친 반면, 서당의 영향력은 향촌내부의 동질성 확보에 한정되었다.[19] 서당의 부락중심적 특성은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 용도와 성격이 변화하여서 강학, 공공모임, 향음주례(鄕飮酒禮), 선조의 조두지소 등으로 이용되었다. 교육의 내용과 수준도 부락의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의 문자교육에서부터 고급 성리서의 강론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이렇게 서당이 향촌사회에 널리 보급되고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서당교육은 활력을 얻어 19세 후반까지 중요한 사립 초등교육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당은 향교, 서원과 달리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또 향교와 서원의 폐습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시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더욱이 17세기말부터 사회변동이 가속화되고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양반층 외에 서민층에게까지 서당교육이 확산되면서 그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학풍이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당의 교육

---

18) 같은 글, p. 85.

19) 같은 글, pp. 84-89. 서당의 향사화(享祀化)는 숙종 이후 꾸준히 강조된 서원억제정책의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서원이 서당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내용도 점차 부실해지고 형식화되어 갔다. 따라서 서당은 문자교육의 초보적인 구실과 과거를 위한 입시학원 정도의 구실만 담당하면서 변질되고 쇠퇴해 갔다. 게다가 서구 근대문물과 함께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서당은 점차 그 존립기반을 상실해 갔다.

물론 한편에서는 서당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리서 위주의 강독 교육 외에 한글과 실용지식도 가르치는 개량서당이 출현하기도 했다. 1883년에 원산의 상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원산학사를 설립했던 일은 서당교육의 근대적 변모를 꾀한 대표적인 결실이었다. 그리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서당은 민족교육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지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당은 그 입지가 점차 좁아져 갔다. 그리고 결국 1918년에 총독부가 초등교육을 식민화하려는 의도에서 「서당규칙」을 제정하면서부터 서당은 인식과 담론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실제 현실의 차원에서도 초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급속히 소멸하기 시작했다.[20]

3.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통제 기제의 완성

조선시대의 교육은 당시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에 근거하고 있었다. 성리학적 교육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인간의 도덕적 행동에 목표를 두고 그 최고 이상인 성인(聖人)과 군자(君子)의 인품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1] 이로써 교육은 한편으로 통치체제에 필요한 관리를 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성리학적 통치이념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였다.[22] 따라서 조선시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

20) 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17년에는 서당이 학교수 24,294개교에 학생수 264,835명으로 공·사립 보통학교와 사립 각종학교를 모두 합쳐 학교수 1,286개교에 학생수 118,385명에 불과했던 근대 초등교육 기관보다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당규칙」이 반포되고 몇 년이 지난 1922년 통계에서 서당은 학생수가 280,862명으로 약간 늘면서도 학교수는 21,057개교로 점차 줄기 시작한다. 반면 보통학교와 각종학교는 학교수가 1,597개교로 늘고 학생수도 30,9,730명으로 늘어 서당의 학생수를 점차 웃돌기 시작한다. 이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0년 이르면 서당은 학교수 4,105개교에 학생수 158,32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보통학교와 각종학교는 학교수 3,285개교에 학생수 1,451,621명으로 서당 학생수의 거의 10배에 이르게 된다.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학지사, 1995, p. 145의 <표 VII-1> 참조.

21) 문형만, 『한국교육의 비교사적 이해』, 형설출판사, 1975, p. 165.

'인륜'과 '수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리학적 교육이념은 서당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당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이었으므로 성리학적 교육이념이 더욱 철저하게 관철되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였다.[23] 강독은 유교경전을 읽기만 하고 해석하지 않는 단계에서(音而不釋), 뜻을 해석하는 단계를 거쳐(訓釋), 점차 과문(科文)과 이학(理學)을 다루는 단계로 나아갔고,[24] 제술은 오언절구, 칠언절구, 사율, 십팔시구 등의 시와 문장을 연습하였으며, 습자는 해서를 중심으로 연습하다가 점차 행서, 초서를 익혔다.[25]

서당교육의 성리학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강독에서 사용된 교재들이다. 서당은 설립과 운영, 교육내용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재도 시대와 지역, 서당의 종류와 성격,[26] 그리고 학도의 연령과 수준[27]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등의 문자 및 기초 훈석 교재를 읽은 후, 본격적인 훈석 교재로 『사략』, 『통감』, 『소학』, 『통감절요』 등을 읽고, 이어서 사서를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28]

---

22) 한동일,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당」, 김선양 외 편, 『한국교육학의 탐색』, 고려원, 1985, p. 236.

23) 같은 글, p. 249.

24) 정순우, 앞의 글, p. 136.

25) 이만규, 앞의 책, p. 180.

26)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서당의 종류는 그 설립주체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훈장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또는 소일거리로 삼고자 설립한 훈장자영서당. 둘째, 부유한 마을 유지가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훈장을 초빙하고 친지나 이웃의 자제들이 무료로 함께 공부하게 한 유지독영서당(私塾, 獨書堂). 셋째, 유력한 자산가의 문중에서 학계(學稧)나 학전(學田)을 조직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그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유지조합서당 또는 문중서당(門中書堂). 넷째, 문중서당이 확대된 것으로서 여러 마을의 유지들이 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그들의 자제를 교육하는 문중연립서당. 다섯째, 한 마을 전체가 훈장의 보수를 공동으로 지급하여 마을의 자제들을 가르친 마을조합서당(洞稧書堂). 이만규, 앞의 책, p. 179; 한기언, 앞의 책, p. 146-147; 「서당」,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중 독서당과 훈장자영서당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이고, 문중서당과 문중연립서당은 16-17세기에 재지사족이 성장하고 동족부락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이고, 마을서당은 18세기 후반 이후 중인과 양인 계층에까지 서당교육이 확대되면서 생긴 것이다.

27) 서당의 학도는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따라서 교육 수준도 문자해독, 단순한 과거준비, 고차적인 이학(理學)과 예학(禮學)을 강론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

28) 이 밖에도 문자교재로 『類合』(徐巨正, 1420-1488), 『新增類合』(柳希春, 1576), 『訓蒙字會』(崔世珍 1527) 등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兒學編』(丁若鏞, 정조), 『蒙喩編』(張混 1806), 『字類註解』(鄭允容, 1856), 『正蒙類語』』(李承熙, 1884), 『蒙語類訓』(이승희, 1888) 같이 뜻있는 개인들이 지은 교재들이나 『幼蒙先習』, 『四字小學』,

이러한 교재들은 시대적 요구, 서당의 종류와 성격, 훈장의 의도 등에 따라 취사선택되고 가감되었다. 한편 서당은 과거 준비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인 학도를 위한 사장(詞章) 위주의 교재도 많이 이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은 성리학적 윤리관을 체득시키기 위해 일상예법과 덕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소학』적 가르침을 중시하였다.[29] 따라서 서당교육의 핵심은 『소학』의 3대 강령인 '명륜'(明倫), '경신'(敬身), '입교'(立敎)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30] 특히 명륜과 경신은 대부분의 서당교재들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어린이를 훈육하는 철칙이 되었다.

1) 명륜: 이는 서당교육의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 모든 교재는 예외 없이 삼각오륜을 수록하고 있었고, 서당기들에도 명인륜의 중요성이 부단히 강조되었다.[31] 『소학』의 중요성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다. 그것은 성균관 진학과 과거의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서당에서도 중요시되었고, 정부 역시 이를 제도화하기도 하였다.[32] 삼강오륜에 기초한 『소학』의 명인륜적 가치체계는 조선건국 후 백성을 통합해 내기 위한 이념으로서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림파가 정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도학정치를 표방하며 『소학』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소학이 제시하는 도덕적 행위를 통해 훈구파와 대항키 위한 것이었다.[33] 그러나 정부나 사림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학』은 조선초의 유자와 생도들에게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소학』은 '아동의 학문'(童稚之學)으로 폄하되었으며, 따라서 단지 과거나 입시에 임박해 읽어보는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사

『推句』 같이 훈장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재들은 물론 『史記』, 『唐宋文』, 『唐律』, 『明心寶鑑』, 『新增類合』, 『入學類說』, 『學語集』, 『春秋』, 『禮記』, 『近思錄』 등도 읽혀졌다. 훈석교재로도 『擊蒙要訣』(李珥), 『明心寶鑑』, 『啓蒙篇』, 『養正錄』(鄭經世, 1604), 『筆語』(曹守初 1642), 『種德新編』(金堉 1644), 『敬民篇』(金正國 1748), 『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曹伸, 중종대), 『五倫行實圖』(李秉模 1797), 『蒙喩篇』(장혼), 『學問三要』(宋秉珣, 1831), 『學語』(朴載哲) 『訓兒遊覽』(慶州崔氏), 『訓蒙輯要』(이부용), 『大同小學』(유청보, 영조대), 『童蒙先學』(왕세창), 『兒戲原覽』(장혼, 1799), 『孝經小學抄解』(영조대), 『制養錄』(李象靖), 『蒙學初讀』, 『四蒙集要』 등이 사용되었다. 이만규, 앞의 책, p. 180; 한기언, 앞의 책, p. 148; 조연순, 앞의 책, p. 75; 정순우, 앞의 글, p. 139.

29) 물론 18세기 중반 이후 장혼의 『아희원람』 같은 교재가 보여준 탈명륜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조선후기 서당교육의 탈(脫)소학적인 변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에 보강하도록 하겠다.

30) 이수건, 「이조시대 소학교육에 대하여」, 『영남대학교논문집』 제2집, 1969, p. 254.

31) 같은 글, pp. 149-151.

32) 윤병희, 「조선 중종조 사풍과 『소학』」, 『역사학보』, 103집, 1984, 9, pp. 44-45.

33) 정순우, 앞의 글, p. 152.

화 이후에 『소학』은 '화를 낳는 책'(禍胎之書)으로 기피되었다.

그러나 중종대에 이르러 『소학』은 신진사족을 중심으로 다시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조광조 등의 신진사족은 그들의 정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학』을 보급하였다. 이는 『소학』의 실천과정 속에서 축적된 도덕적 우위성을 가지고 훈구세력과의 명분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중종을 그들의 세력권 아래 두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재지사족 사이에서는 『소학』의 중요성이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강조되었다. 이는 향촌사회에 『소학』적 예경주의(禮敬主義)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사림파의 세력기반을 향촌사회에 부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소학』이 제시하는 바의 예를 향촌사회에 맞게 변화시킬 목적으로 간행된 책들을 널리 보급하였다.[34] 그리하여 『소학』은 서당교육에서 널리 보편화되면서 명륜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명륜 중심의 『소학』적 교육이 지고의 가치로 강조되었던 요인은 서당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있었다. 정부나 재지사족은 서당교육을 통해 향촌 백성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유교적인 최고선을 실현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여기서 『소학』은 이를 가능케 하는 보편타당한 윤리를 제시하는 준거로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서당교육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학』에 근거한 명인륜은 내면적 도덕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다양한 교재를 통해 혹은 세세한 「학규」(學規)들을 통해 계속 보강되면서 서당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아 갔던 것이다.[35]

2) 경신(敬身): 문집과 서당기의 「학규」들을 검토해 보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각종 규제와 지침이 번잡할 정도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새벽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학도의 일거수 일투족은 일일이 규제된다. 그리고 학도들은 일상사의 상세한 행동들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을 때 비로소 필수적인 공경의 마음가짐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엄격한 학규를 적용한 것은 일상사의 가까운 행동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체득하는 것에서 유교의 참된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당에서는 "물 뿌리고 쓸며, 타인을 대하거나 나아가고 물러섬에 절도가 있는"(灑掃應對進退之節) 『소학』 공부가 우선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서당의 학규는 "낮은 것부터 배워 높은 것에 이른다"(下學以上達)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되도록 어린이를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학규뿐 아니라 교재들에도 담겨있었다. 교재들은 『소학』

34) 같은 글, pp. 153-155.
35) 같은 글, pp. 164-165.

의 체제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서당의 수업기간은 기존의 문화를 착실히 내면화하는 단계였다. 어린이가 서당에서 배우는 기간은 "스스로 온전히 하지 못하는"(不得自專) 배움의 시기이다. 따라서 어린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하학(下學)의 공부를 반복하여 그것이 체화될 때 비로소 능히 스스로 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는 것(上達)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존장자에 대해 지녀야 하는 예법과 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모든 역할의 주체는 어른이고 어린이는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피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린이의 하루는 어른의 의사를 충분히 따르는 데 끼워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36]

그렇다면 왜 서당교육은 어른의 권위를 극대화하고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가능한 한 억제하려 했던 것일까? 이는 전통사회에서 어린이가 방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일상사의 행위들이 강조되는 것은 그것이 방일한 마음을 수습하는 주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의 생활교육을 중시하고 형이하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재에 반영코자 하는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문자교육용 교재와 학규를 통해 꾸준히 지속되었다.[37] 그리하여 『소학』에 근거한 경신은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이고 외면적인 수단으로서 내면적 윤리인 명륜과 함께 교재와 학규들을 통해 서당의 핵심교육으로 자리잡아 갔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적-세속적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근거한 서당교육은 『소학』적인 명륜과 경신을 통해 어린이의 몸에 대한 내면적·외면적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방식들이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내면에 본원적 이치(理)를 나누어 받은 본원적 성(性)을 갖춘 존재로 여겨진다. 그리고 본원적 성은 수기치인을 체득한 몸의 습성과 행동을 통해 외면화된다. 따라서 성리학적 교육은 내면적 본성과 외면적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인간(성인과 현자)에 이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여기서 내면과 외면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의 발현과정 안에서 본원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그 일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기치인을 몸으로 체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당교육의 근간인 『소학』적 교육은 내면적 본성을 다듬어 가는 명륜과 외면적 행위를 다듬어

36) 같은 글, pp. 168-171.
37) 같은 글, pp. 172-173.

가는 경신을 통해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결국 서당교육에서 어린이의 몸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점이었던 것이다. 서당교육에서 어린이의 몸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이상적 인간의 총체성 안에 있었고, 따라서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총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4. 소학교의 출현과 전개

19세기 말, 개항은 조선사회를 갑작스런 변화의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와중에서 기존의 서당은 한편으로 쇠퇴를 겪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변화에 적응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한편 같은 개항 공간의 다른 층위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근대적 초등교육 기관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는 개항 후 조선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외적 압력과 내적 요청간의 절충 속에서 서양 근대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조선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근대화의 급류는 공적 삶과 사적 삶의 전 영역의 전 영역을 휩쓸었다. 물론 이 과정이 단번에 동질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화 과정은 이를 수용하는 주체들이 처해있던 자리에 따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들쭉날쭉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근대문물이 수용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던 영역들은 정부와 민간 모두의 관심 속에서 급격히 변해 갔다.

교육은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영역이다. 개항기에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한 주체들은 선교사들과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정부였다.[38] 선교사들이 세운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은 (굳이 포함시키자면) 1855년 천주교 신부들이 충북 진천에 세운 배론 성 요셉 신학당이다. 이는 일종의 신학교였지만 신학 외에 다른 서양학문도 가르쳤다. 그러나 천주교의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학교의 교육은 제한된 소수에게만 제공되었으며 따라서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적었다.[39] 선교사들의

38) 본고에서 필자는 통감부 설치 이전 일제가 교육정책에 끼친 직접적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 물론 외적으로는 일제가 직접적인 소학교 설립 주체로 등장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선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것은 압력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일종의 모델로서이기도 했다. 특히 교육관계 법규들이 거의 전적으로 일본식 모델을 따라 개편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식민교육으로 이월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대 교육기관 설립이 본격화한 것은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다. 선교사들은 선교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의료와 교육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병원을 세우고 이어 제중원의학교, 배재학당, 야소교학당, 이화학당, 정동여학당 등을 세워 본격적인 서구식 근대교육을 시작하였다.[40] 한편 근대교육을 통해 나라의 부강과 독립을 이루려던 민족주의자들은 1883년의 원산학사 이후 1895년의 홍화학교, 1901년의 각연의숙(보광학교), 1902년의 오산학교, 1904년의 청년학원 등 중등학교 이상의 민족주의 사립학교들을 계속 설립하였다.[41] 정부도 1883년에 통역관 양성소 동문학을 설립한 후 1886년에 최초의 관립학교인 육영공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1888년에는 미국인 교관을 영입하여 최초의 사관학교인 연무공원을 설립하였고, 1891년과 1894년에는 관립 일어학교와 영어학교를 설립하였다.[42]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들은, 전문 교육기관이나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들을 제외하면, 학령이나 교육내용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미분화된 교육기관들이었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이러한 미분화된 근대 교육기관들 안에 잠정적 형태로 내재해 있었을 뿐 아직 가시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았다.

근대적 초등교육 기관이 소학교라는 공식적 교육기관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는 기존에 교육을 관장하던 예조를 폐지하고 학부아문[43]을 신설하였으며, 변질된 관리임용제도인 과거를 폐지하였다.[44] 교육제도의 이러한 개편은 서구 교육제도를 수용했던 일본 교육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45] 따라서 이는 근대 전환기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방향은 1895년 1월에 고종의 명으로 선포된 「홍범14조」에도 잘 나타난다. 여기에는 "국가의 총준(聰俊)한 자제를 널리 유학 보내어 외국의 학술과 기예(技藝)를 배우게"[46] 한다고 하여 서구 근대교육을 수용하고자 하는 바람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해 2월에 고종이 반포한 「교육입국

---

39) 임재윤,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천과정」, 교육연구실 편, 『한국 신교육의 발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984, 127-128.
40)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pp. 194-199.
41)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0, pp. 109-110.
42) 같은 글, pp. 38-44, 94; 한국교육연구소 편, 앞의 책, p. 135.
43) 다음 해에 학부(學部)로 개칭됨.
44) 『舊韓國官報』, 제2호, 개국 503년(1894) 6월 28일.
45) 손인수, 앞의 책, p. 82.
46) 『舊韓國官報』, 제7호, 개국 503년(1894) 12월 12일.

조서」에도 서구 근대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가 나타난다: "세계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건대 부강하여 독립하고 웅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다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開明)하였다. 이는 교육의 선미(善美)함으로 된 것인 바 교육은 실로 국가보존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짐이 군사(君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맡노라. 교육도 또한 그 길이 있는 것이니 먼저 헛된 명분과 실용을 분별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제 짐이 교육하는 강령을 보이니 헛된 명분은 버리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라. 가로되 덕양(德養)이니.... 가로되 체양(體養)이니.... 가로되 지양)智養이니.... 가로되 이 세 가지는 교육하는 강기(綱紀)니라.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함은 그대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큰 공을 이루기 위함이라...."[47]

일련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서구 근대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가운데 조선정부는 1895년 4월에 칙령 제79호로 「한성사범학교관제」[48]를 공포하고, 이어 7월에 칙령 제145호로 「소학교령」[49]을, 8월에 「소학교교칙대강」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소학교의 법제화가 완료되었고, 이제 소학교가 공식적인 초등교육 기관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소학교는, 「소학교령」 제1항 제1조에서 규정하듯이, "아동 신체의 발달함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당을 제외한 관립, 공립, 사립 초등교육 기관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사립 초등교육 기관들은 이제 소학교라는 제도교육의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되었고, 일제가 통감부와 총독부를 통해 식민교육을 전개할 때에도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쇠퇴하고 있던 서당은 「소학교령」에 의해 점차 초등교육의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비제도적인 사학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소학교를 제도화한 정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근대교육의 보편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금새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지방은 고사하고 당장 서울에서도 소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쉽지 않았다. 1895년 8월 28일자 『휘보』를 보면 서울 소재 관립소학교 네 곳의 학생수는 장동소학교 23명, 정동소학교 76명, 계동소학교 40명, 묘동소학교 48명에 불과했다. 이에 학부대신 서광범은 9월에 「소학교취학설유」를 공시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의 취학을 호소하였다:

---

47) 『舊韓國官報』, 제8호, 개국 504년(1895) 2월 20일.
48) 『舊韓國官報』, 제10호, 개국 504년(1895) 4월 19일.
49) 『舊韓國官報』, 제119호, 개국 504년(1895) 7월 22일.

소학교취학설유

교육은 개화의 근본이라. 애국의 마음과 부강의 기술이 다 학문으로부터 생기나니 오직 나라의 문명은 학교의 성쇠에 따른지라. 현재 스물세 개 부(府)에 학교를 아직 다 세우지는 못하였거니와 우선 서울 내에서 소학교를 장동과 정동과 묘동과 계동 네 곳에 설립하여 아동을 교육하는데, 정동 외에 세 곳에 있는 학교건물이 협애(狹隘)하기로 장동은 매동 전(前) 관상감으로 묘동은 혜동 전 혜민서로 계동은 제동으로 옮기고, 학도를 팔 세 이상에서 십오 세까지 증원 모집하여 그 과정은 오륜행실(五倫行實)로부터 소학과 본국역사와 지지(地誌)와 국문과 산술과 기타 외국역사와 지지 등 시의에 적용(適用)한 서책을 모두 가르쳐 허문(虛文)을 버리고 실용을 숭상하여 교육을 무진(務盡)케 하노니, 무릇 외국학교의 규정을 염두해 보건대 아동이 학교에 입학치 아니하는 자는 그 부형을 벌하는 예도 혹 있는지라. 우리 나라에는 이런 규정을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으니 아동의 부형되는 자는 그 자제를 대동하고 본 부서에 와서 허입장(許入狀)을 받은 후 학교에 보내어 학업을 힘써 닦되 혹 해타(解惰)하여 간단(間斷)하는 폐가 없기를 바람.

이러한 조치는 소학교가 제도상으로는 확립되었지만 사회 전반에서 신식 소학교에 대한 무관심이 지배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여 소학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50] 이러한 형편은 지방의 경우 더 심각했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지방의 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1896년 2월 학부령 제1호로 「보조공립소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51] 이는 지방 관공립 소학교 재정의 일부를 정부예산에서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후에도 정부는 『관보』에 학생모집 광고를 싣기도 하는 등 소학교를 계속 홍보하였다. 한편 민간에서도 소학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일어나서 『독립신문』 등의 민간신문들이 소학교에 대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고 지방민들이 소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와 민간의 노력 속에 1895년에 서울 5개교, 지방 37개교에 불과하였던 소학교 수가 1905년에는 서울 10개교, 지방 62개교로 증가하였다.[52] 게다가 선교사들과 민간인들이 설립한 사립 소학교들도 계속 증가하여서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국의 관·공·사립 소학교 수가 3천 개교를 넘게 됨으로써 소학교가 범국민적인 초등교육 기관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소학교는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본격화하면서

50) 이원호, 『개화기 교육정책사』, 문음사, 1983, pp. 79-80
51) 『舊韓國官報』, 제257호, 건양 원년(1896) 2월 25일.
52) 교동국민학교, 『교동 90년사』, 문음사, 1983, pp. 47-49.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교육은 그 성격상 식민지배의 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유용하고 파급력이 큰 수단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자마자 재빨리 교육제도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8월 27일에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보통학교령」을 공포하였으며, 다른 법령들도 계속 폐지하고 신설하고 개정하였다. 이로써 소학교는 우리 근대사의 한 편에 영영 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소학교가 이미 일본식 모델을 따른 것이었듯이, 보통학교는 사실상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소학교 제도가 구축해 놓은 기반 위에 새 집을 짓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소학교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것은 개항과 일제강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초등교육 기관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5.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통제 기제의 세속화

「소학교령」에 나타나듯이, 소학교의 목적은 ① 아동 신체의 발달함에 비추어 ②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가 소학교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였고 소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준거였다. 그리고 그 목표는 전국에 설립된 수많은 관립, 공립, 사립 소학교들을 통해 구현되었다. 신체발달과 국민교육. 이 두 가지 문제는 근대적 전환기에 초등교육 부문에서 어린이의 몸이 어떻게 근대적인 힘들의 관계 구조 속으로 재배치되었는지,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가 어떻게 세속화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지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소학교에서 어린이의 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을까? 필자는 이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수신 교과목의 출현. 둘째, 몸에 대한 관심의 증가. 셋째, 의무교육 개념의 출현. 그러면 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1) 수신 교과목의 출현: 수신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근본으로서, 『소학』에 기초한 전통사회의 교육 전반에서, 특히 서당교육에서 거듭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수신의 중요성은 근대 교육제도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전인적 인륜교육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전통교육의 성격이 근대교육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연결지점을 보여준다. 고종이 반포한 「교육입국조서」에는 이 점이 잘 나타난다: "가로되 덕양(德養)이니, 오륜(五倫)의 행식을 닦아 강규(康規)를 문란케 하지 말고 풍습을 가르치며 퍼뜨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지어

다.... 가로되 체양(體養)이니.... 가로되 지양(智養)이니..." 여기서 덕성을 기르는 것은 '오륜을 닦음으로써 강규를 지키고 풍습을 가르쳐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는 수신의 기본으로서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나아가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출발점이 된다. 그뿐 아니라 덕성을 기르는 것은 신체를 단련하고(體養) 지식을 늘리는 것(智養)에 앞서는 최우선적인 교육목표로 제시된다.

이번에는 「소학교교칙대강」을 읽어보자: "제일조. 소학교는 소학교령 제일조의 본지(本旨)를 존봉(尊奉)하여 아동을 교육함. 덕성을 함양하고 사람의 도를 실천함을 면(勉)하는 것이 교육상에 제일 주안이 되는 고로 아무 교과목이라도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유의하야 가르칠 것을 요함." 「조칙」에서처럼 여기서도 덕성을 함양하고 사람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초등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신, 즉 "교육에 관한 조칙의 취지에 바탕하여.... 아동의 양심을 계도하여 그 덕성을 함양하며 인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것을 소학교 교과과정의 첫 번째 교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수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효제, 우애, 예경, 인자, 신실, 의용, 공검(恭儉) 등을 실천하고, 존왕애국(尊王愛國)하며, 신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염치(廉恥)의 중함을 알며, 풍속과 품위의 순정(純正)에 추(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수신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소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사용된 수신 교과서들은 실용교육에 앞서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53] 그리고 그 근본 윤리관은 삼강오륜에 입각한 성리학적 윤리관이었다.[54] 이와 같이 전통사회의 교육을 지배해 온 수신 중심의 『소학』적 교육은 근대사회의 소학교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학교교육은 전통적인 수신교육을 그대로 계승하였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넘어감에는 분명 미세한 균열이 있다. 그 균열의 한 지점을 우리는 수신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독립하여 초등교육의 첫 번째 교과목으로 자리매김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수신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는 소학교 교과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강」에 따르면 소학교 심상과(3년)의 교과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를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체조를 빼고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圖畵), 외국어, 재봉 등이 추가된다. 고등과(2-3년)의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를 기본으로 하여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이과, 도화, 체조, 재봉, 외국

53) 『國民小學讀本』(學部, 1895, 국한문혼용), 『小學讀本』(學部, 1895, 국한문혼용), 『新訂尋常小學』(學部, 1896, 국한문혼용), 『樵牧必知』(정윤수, 1903, 한글).

54) 조연순, 앞의 책, p. 125.

어 등이 추가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신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전통교육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다. 전통교육에서 수신은 수기치인의 기반으로서 교육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분절되지 않는 근본이었다. 이는 내면과 외면을 본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양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을 수양하면서 이에 맞추어 외면을 다듬어 가는 것을 지고의 과제로 삼았던 성리학적 세계관의 한 측면이었다. 여기서 외면적 윤리는 어디까지나 내면적 수양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 내면과 외면의 이러한 본원적인 동일성은 사라지고, 양자는 서로 분리된 채 자율적인 영역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내면적 수양과 외면적 윤리는 정신적 덕성과 행동적 규범으로 분절되고 서로 합일되지 않은 채 공존하게 된다. 제도화된 수신 교과목은 바로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분절화의 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분절화된 수신 교과목은 정해진 교과과정상의 한 지점에 배치된다. 그 배치의 준거는 교육적인 중요도이다. 따라서 덕양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인간의 도리를 익히는 수신이 첫 번째 교과목으로 배치되고, 다음으로 교육의 기본 도구를 습득하는 독서, 작문, 습자가, 다음으로 실용교육의 기반이 되는 산술이, 그리고 등급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머지 과목들이 선별적으로 배치된다.

여기서 보듯이 수신 교과목이 교과과정의 첫 번째 서열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소학』적 교육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보았듯이 수신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그 지속이 그저 연속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수신 교과목의 출현과 내면적 윤리의 서열화는 수신에서 평천하에 이르는 종교와 세속을 결합한 성리학의 전인적 윤리관이 세속화되고 재편되어 결국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학교교육에서 어린이의 몸은 내면과 분리된 외면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결국 내면과 외면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통제되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2) 몸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일단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면 양자는 나름의 영역에서 차등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개항기 조선사회에서 내면적 영역은 전통적인 수신 윤리관의 강조, 존왕애국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출현한 민족주의, 초자연과의 연관 속에 영적/정신적 영역에 몰두하는 종교적 영역의 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다. 한편 외면적 영역은 윤리와 분리된 외적 행동규범의 강화, 객관적 실재로서의 외적 사물세계에 대한 탐구와 그에 대한 실용적인 추구들, 그리고 외면적 몸에 대한 관심 등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런데 봉건사회의 모순이 파열되고 서구와 일

본의 압력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던 개항기 조선사회에서 사회의 관심과 에너지는 점차 외면적 영역으로 쏠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대의 위기가 내적 부패에 외적 압력이 가중된 데서 비롯한 것이며 따라서 내적 갱신은 물론 그에 앞서 당장 외적 힘의 축적이 절실하다는 당대적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실천 없는 윤리는 탁상공론이며, 실용 없는 헛된 학문은 쓸모없는 것이고, 병약한 신체에는 온전한 정신이 깃들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면적인 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교육영역에서도 이 점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입국조서」는 몸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가로되 체양(體養)이니, 동작을 떳떳이 하여 부지런히 힘쓰기를 주로 하고, 게으름과 편안함을 탐하지 말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피하지 말며, 그대의 힘줄을 굳게 하고 뼈대를 튼튼히 하여 건장하고 병 없는 즐거움을 누려 받으라." 이 구절은 신체동작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 건강의 가치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몸이 강조되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노동력이 국가 부강의 근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편 소학교 교과과정에 체조가 정식 교과목으로 (물론 필수는 아니었지만) 편성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였다. 체조의 강조는 "신체의 성장을 균제 건강케 하며 정신을 쾌활 강의(剛毅)케 하고 동시에 규율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최초에는 적절한 유희를 하게 하고 점차 보통체조를 가하되 적절한 병식체조의 일부를 가르치는 것," "토지의 상황에 따라 체조교수시간 외에도 적절한 옥외운동을 하게 하는 것," "체조교수에 의해 습성한 자세는 항상 이를 보존케 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체조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과 규율을 지키는 자세의 기반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몸은 더 이상 내면의 외면화된 표상이 아니다. 몸은 오히려 그 자체가 내면을 규제하고 근거 짓는 엄연한 외적 실체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외면적 몸에 대한 관심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보인다: "서양사람들은 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기구들을 각 학교에다 갖추어 놓고 공부하는 틈틈이 마음대로 놀게 한다. 이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사람이 항상 정력을 쏟고 혈기를 펼치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해로울 뿐더러, 사람은 동물이라서 어린아이가 노는 것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두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반드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이 먼저 그 성격을 순히 하여 노는 시간을 허락해 주고, 여러 가지 기구를 주어서

거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며, 유익한 운동을 겸하게 하려는 것이다."[55] 여기서 유길준은 어린이의 신체 활동을 자유로이 허락하는 서구식 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몸, 놀이와 운동,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전통 교육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동물"이라는 것, 즉 사람은 성정(性情)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고 놀고 노동하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면적 몸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개항기 동안 줄기차게 이어졌다. 체조 같은 것 뿐 아니라 서구 근대의학에 도입에 따라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체육이나 위생 등을 중심으로 한 몸에 대한 관심은 1890년대 말의 『독립신문』, 1900년대 초의 『경향신문』, 1900년대 후반의 학회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갔다. 박은식이 1904년에 쓴 『학규신론』은 몸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가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천지의 기운이 활동해서 만물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이다. 그 활동이 밝은 것을 얻어서 마음이 되고, 활동의 힘을 얻어서 몸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활동은 천지의 기운과 함께 유행해서 쉬는 법이 없다. 이와 같은 이치에 순응하여 그 밝은 마음을 개발하고, 그 힘을 배양하는 것이 곧 교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단련할수록 굳세어지고, 마음은 쓸수록 밝아진다. 날마다 단련하면 몸이 지칠 것 같고, 날마다 쓰면 마음이 쇠해질 것 같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것과 반대이다. 그렇다면 날마다 단련하면 굳세어지고, 날마다 쓰면 밝아진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몸과 마음이 본래 활동하기 때문인 것이다. 단련하면 더욱 굳세어지고, 쓰면 더욱 밝아지는 것은, 그 타고난 성품에 따르는 것이며, 결코 그 성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몽매했던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약했던 몸이 점점 굳세어진다. 샘이 솟아나는 것은 마땅히 길을 열어주어 멀리 흐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막아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미주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은 체조를 익히며, 보통학교에서 예전 소학에서 행하던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또 이른바 찰물학당(察物學堂)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놓고 학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들로 하여금 글을 배우기 전에 이것을 보고 익히게 했다. 우리 나라의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은 어찌 이다지도 소홀하며, 이다지도 침체되어 있는가? 아동을 지도하는 스승의 가르침이란, 오직 글을 읽고 시를 쓰는 것뿐이다. 입으로 글자나 구절을 읽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심지(心智)를 개발할 수 있

55) 유길준, 『서유견문』, 1889, 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5, p. 216.

> 단 말인가? 앉으면 반드시 벽을 향해 마치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도 있는 듯하며, 감히 동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몸을 기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정이 우울해서 활달하지 못한 폐단이 생겨나는 것이다.... 오늘의 우활(迂闊)한 선비들은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 성정(性情)을 함양시키는 일을 철두철미한 공부로 여기고 사물을 도외시하며, 그 몸은 소상(塑像)처럼 만들고 마음은 시들어 마른 나뭇등걸이나 식은 재처럼 만들어서, 마치 불(佛)·노(老)의 법문(法門)과도 같으니 이러고서야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 ..... 어려서 기르고 자라서 익히는 것이 모두 침체하고 활동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현명한 인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와 같이 되는 원인을 깊이 생각하여 활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종전과 같은 허수아비가 되는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56]

박은식은 유학적 입장에서 기(氣)의 원리에 입각하여 마음과 몸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듯이 마음과 몸은 기의 밝음과 움직임의 산물로서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골고루 양육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는 마음과 몸을 제대로 양육하는 방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교육, 몸을 움직이는 교육, 몸을 기르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는 마음에만 치중함으로써 몸을 쇠진시켜 온 전통교육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자연히 몸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항기 초등교육에서는 내면으로부터 분리된 외면적 몸이 내면적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더욱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제 외면적 몸이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근대사회의 새로운 분절적이고 비가시적인 감시와 통제의 시선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면서 민중의 몸이 폭압적인 권력의 은밀한 감시와 폭압적인 통제의 해부대 위에 놓이게 되는 단초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3) 국민교육 개념의 출현: 소학교가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그것이 전국민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교육 개념을 보편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교육의 개념은 소학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한 예로 박영효는 「상소문」에서 전통교육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서양식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

56) 박은식, 『학규신론』, 박문사, 1904, 김옥균 외,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90, pp. 134-136.

다.[57] "오늘의 급무는 학교를 크게 일으키며 박학하고 이치에 통달한 선비를 맞아들임으로써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로는 세자전하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입학시켜서 공부케 함으로써 천지의 무궁한 이치를 밝힐 것 같으면 문덕(文德)과 재예(材藝)가 다시 찬연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련의 개혁안 안에 교육개혁안을 포함시키면서 "소·중학교를 설립하여 6세 이상의 남녀로 하여금 모두 학교에 들어가서 배움을 받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1898년에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에도 이러한 의무교육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훈도하여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이므로 정부는 국민교육에 관한 법령을 설정하여 정부의 위령으로 강요하든지, 권유하든지 간에 널리 실시한다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국민교육 개념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서도 확산되어 갔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계몽적 민족지인 『독립신문』은 제도로서의 학교의 설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보편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자식들 교육하는 것이 곧 봄에 씨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부와 인민이 급히 소학교를 도처에 확장하야 교육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소학교는 국민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어린이교육을 담당할 곳이므로 방방곡곡에 세워야 한다." "금후 나라의 흥망은 어린이의 교육여하에 달려 있으며, 자강의 가장 기초적인 사업은 바로 이들 어린이를 교육시킬 소학교의 설립에 있다." "대한에 한가지 바랄 것은 교육밖에 없도다.... 아무쪼록 학교를 넓게 설치하여 교육을 힘써서 가른 데 허비하는 국재를 모두 남녀 교육에 쓰기를 지극히 원하노라" 등등.[58] 이후로도 국민교육의 개념은 계속 보급되고 확산되어 갔다.[59]

의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실현하고자 교육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편하였고 그 결실로서 소학교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나아가 의무교육 개념은 전국에서 정부와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에 의해 소학교가 속속 설립되고 확산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의무교육 개념은 소학교를 근대적 지식과 세계관이 전국 곳곳에 스며드는 통로로 만들어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무교육 개념에 의해

57) 이광린·신용하 편저,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 일지사, 1984, pp. 220-222.
58) 『독립신문』, 제1권 제16호, 건양원년(1898) 5월 12일자; 제3권 제1호, 광무 2년(1898) 7월 6일자; 제4권 제2호, 광무3년(1899) 1월 6일자.
59) 박은식도 『학규신론』에서 "공사간에 재물을 모아 널리 학숙(學塾)을 세우는 일이다. 대체로 문학을 크게 일으키려면 전국의 시, 읍이나 향촌 어디에도 학교가 없을 수 없어 사람마다 모두 공부하게 해야만 될 것"을 강조하였다.

소학교는 어린이의 몸에 대한 근대적 감시와 통제의 기제가 작동되는 복합적인 장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즉 교육의 의무화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또는 공권력에 의해 자녀들을 소학교에 입학시키게 하였고, 이로써 어린이의 몸이 근대적 학교에서 교차되던 무수한 힘들의 관계 속으로 편입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의무교육의 개념은 소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의, 나아가 조선사회 전체의 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제가 형성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학교교육은 한편으로 조선시대의 종교적-세속적 지배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총체적인 수기치인 교육을 어느 정도 지속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종교와 세속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세속 초등교육 기관이었던 소학교는 이러한 지속의 이면에 분명한 단절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소학교교육은 수기치인 교육의 총체성을 내면적 윤리로 국한시키고 서열화한 후에, 몸을 내면과 유리된 외면적 몸으로 재편하고 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형태의 교육을 전국의 어린이게게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어린이의 몸이 근대 초등교육의 분절적이고 비가시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제 속으로 편입되게 하였던 것이다.

6. 맺음말

봉건사회의 붕괴와 제국주의의 대두에 직면해 있던 개항기 조선사회는 부국강병과 민족독립을 위해 개화와 자강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구체적인 생존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서구와 일본의 근대적 모델을 따라 구체화되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여기서도 서구와 일본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대 초등교육은 소학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었고, 서당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점차 주변화해 갔다. 이 과정은 제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왕과 정부, 양반과 서민 모두의 인식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교육입국조서」에서처럼 종래의 서당교육을 "독서나 습자에 있어서 옛 사람의 찌꺼기를 주워 모아 시세의 대국(大局)에 어두운 자는 그 문장이 비록 고금을 능가할지라도 무용의 한 서생(書生)에 지나지 않느니라"고 비판하는 식의 담론은 다양한 텍스트 속에서 계속 재생산되었다. 1908년에 공포된 「서당관리에 관한 건」은 서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서당관리에 관한 건

교육의 요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도를 알게 하며 사회의 행복을 증진케 하는 것인 고로 이를 시시설(施設)함에 불가불 시세의 변천을 따라 실지에 적용케 할지라. 서당의 교육은 우리 나라의 옛 제도에 속하여 그 연혁이 장구하나 상고의 풍에 빠지고 개명(開明)의 사물에 멀어서 오직 한문학의 이습(肄習) 행하고 조금도 처세상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고자 노력치 아니하여 학동으로 하여금 오직 그 정력을 헛되이 쓰고 세월을 낭비함에 그치나니, 이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케 하는 소이의 도가 아니라. 이에 혹자가 서당폐지의 뜻을 외침도 모두 역시 당연한 것이니, 서당은 신교육의 보급을 따라 불폐자폐(不廢自廢)함에 돌아갈지라. 오직 지금 우리 나라 교육상 시설이 아직 불완전한 때에 다수의 서당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허다의 아동으로 홀연히 그 수학(修學)의 길을 잃게 하는 결과가 생기리니 역시 가볍게 결단하기가 불가능한지라. 서당으로 그 수업을 폐지케 아니할진대 그대로 내버려둠은 용납할 수 없으니, 서당으로 하여금 그 사정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그 시설을 신식으로 개량하여 도근실용(導近實用)케 함이 그 마땅함에 적합함으로 믿는 바, 본 대신은 이에 서당에 관한 관리상 필요사항 수 건을 들어 보이노니 지방관은 이 취지를 선체(善體)하여 지도감독의 방책을 물건(勿愆)하기를 기(期)함이 가함.

1. 서당 소재지에 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 자제로 보통학교에 입학할 연련에 달한 자는 우선 보통학교에 입학케 함을 상례로 하여 서당에서 그 보통학교에 입학함을 방해하거나 보통학교에 전학함을 저항하는 등의 일이 없기를 요함.

단 그곳에 보통학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설비 상에 수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예에 의함을 요하지 않음.

2. 서당에서 과하는 학과는 한문으로 위주하나 국어의 처세상 필요함은은 결코 한문에 양보할 수 없는지라. 고로 서당중 그 사정의 구애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어를 가설함을 권장함이 가함.

3. 한문교수의 실황을 본즉 음독에만 노력하고 그 뜻을 해득케 하는 일이 없는 일이 허다하니 이렇게 하면 지식계발과 덕성함양에 바탕이 됨이 없어서 수습 다년이라도 소득이 극히 적을 지니 지금 이후로는 지덕개진상에 유의하여 교수방법을 개량케 함을 요함.

4. 일반서당은 학동의 체육에 유의치 아니하고 오로지 오래된 습관을 심어서 미명으로브터 일몰에 이르기까지 단좌(端坐)하여 학습에 노역케 하는 바 종내와 같이 한문음독에만 전공하면 혹 불가치 아니하다 하겠으나 만일 교수의 목적을 지덕개진상에 두어 마음의 작용을 복잡케 할 시는 장시간의 학습은 학동의 심신을 해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즉, 교수시간을 학동의 신체와 뇌력에 무조(鑑照)하여 적당히 감축케 함을 요함.

5. 학동의 규율과 풍장(風儀)에 대해서도 일반 서당은 이를 경시함과 같은 바 지금 이후로는 관이훈도(管理薰陶) 상에 유의하여 소연시대에 선양한 습관을 기르기에 힘을 쓰게 함이 가함.

6. 서당에 교실과 기타 설비의 완전한 것이 거의 없는 취중(就中) 협애(狹隘)한 내실에 많은 학동을 잡거케 하여 채광 환기와 기타 위생상의 주의를 결하는 등의 일은 발육기에 있는 학동의 신체를 해함이 용납할 수 없은즉, 교실의 규모가 협소한 서당에서는 학동으로 하여금 교체 출입케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채광통풍을 만족히 하고 안팎을 물뿌리고 쓸어서 청결 정돈을 유지케 함을 요함.[60]

이 조칙은 서당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서당교육의 환경이 어린이의 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시 서당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어린이의 외면적 몸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서당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담론이 전개되어 갈수록, 종교적-세속적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이상 속에서 『소학』에 근거하여 내면적 윤리와 외면적 행동을 일치시키려던 전통적 서당교육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그리고 내면과 외면을 분리시키면서 내면적 윤리를 서열화하고 외면적 몸을 육성하는 데 치중하는 세속적 소학교교육이 서서히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항 공간을 살았던 어린이들의 몸은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되고 구획되면서 근대 초등교육의 세속화된 감시와 통제의 기제 속으로 편입되어 갔고, 이는 지금까지 우리 몸이 처해온 근대적 조건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60) 『舊韓國官報』, 제4236호, 융희 2년(1908), 9월 10일.

참고문헌

『舊韓國官報』.
『독립신문』.
교동국민학교, 『교동 90년사』, 문음사, 1983.
문형만, 『한국교육의 비교사적 이해』, 형설출판사, 1975.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역, 나남, 1995.
박은식, 『학규신론』, 박문사, 1904, 김옥균 외,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90.
유길준, 『서유견문』, 1889, 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5.
윤병희, 「조선 중종조 사풍과 『소학』」, 『역사학보』, 103집, 1984년 9월.
이광린 · 신용하 편저,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 일지사, 1984.
이만규, 『조선교육사』 I, 풀빛, 1991.
이수건, 「이조시대 소학교육에 대하여」, 『영남대학교논문집』, 2집, 1969.
이 욱, 「퇴계의 서원건립 활동에 나타난 유교이념과 사회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원호, 『개화기 교육정책사』, 문음사, 1983.
임재윤, 「교육내용과 방법의 변천과정」, 교육연구실 편, 『한국 신교육의 발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정순우, 『18세기 서당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학지사, 1995.
최재석, 「동족부락」, 『한국사』, 13집,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사』, 풀빛, 199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한기언, 『한국교육사』, 박영사, 1963.
한동일,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당」, 김선양 외 편, 『한국교육학의 탐색』, 고려원, 1985.